朝鮮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八面
京城堅志洞一九五 朝鮮日報社

社說

拷問致死事件의 公判

今後弊害根絶이 必要

一

鐵原勞働組合事件의 被疑者 朴鍾乘을 拷問致死케 한 嫌疑로 前元山警察署員高野、岩本、金昌朝等에 對한 被告事件의 公判은 朝鮮에 잇서서의 이러한 類의 事件의 가장 實證的인 典型을 提示하는 點에서 이 公判에 잇서 特히 注目할만 하거니와 이 公判에 잇서 干與한 檢察官이 警察官의 拷問의 弊害를 痛論하고 被疑者의 取調는 반다시 證據蒐集에 全力을 다함이 穩當하다고 論告한 것은 當然한 일로서 이러한 類의 非難할 行爲를 敢行한 一聯의 被告에 對한 警告에 그칠뿐아니라 널니 朝鮮에 잇서서 或是 잇슬수잇는 過去의 또는 未來에 對한 注意로서 傾聽할만 하다할것이다

二

大槪拷問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法治形式이 完成되지 못한 時代——復讐刑이 生活秩序維持의 唯一한 手段이 되든 當時 被害者가 加害者의 事實告白을 强制하기 爲하야 또는 聚合團體가 그 團體의 利益을 害한 想定한 犯人을 自白시키기 爲하야 行하든 殘忍한 野習으로서 그것은 刑罰을 社會的으로 行使식힐만한 統制된 法治社會로 進化되지 못한 時代의 自然法行使로서의 豫備行爲엿스며 歐洲에 잇서서는 封建時代로부터 資本主義時代에의 過渡期에 나타난 所謂警察國家時代——그 特徵은 國家가 無制限한 權力을 가지고 警察的 干涉의 形式으로 外國民生活의 모든 領域을 干涉하는 時代、스스로 그 國家權力의 行使는 國民彈壓으로 나타나지 아니치 못하든 時代에 强力한 警察權의 行使가 自然非正常한 方法으로 기우러저 나타난 野習이다 그럼으로 그것은 現代의 法治主義社會에 잇서서는 當然히 消滅되것서야할것은 말할것도업는일이다

三

警察의 存在目的은 社會生活의 秩序維持에 잇슴으로 그 健全한 發達을 期하고 其障害를 除去하기 爲하야 司法警察로서의 職權을 發動식히는 것이다 그럼으로 檢察機關의 補助에 不過한 司法警察官의 被疑者의 取調는 法理的으로 解釋할 때는 犯罪의 證據를 搜索하는 範圍의 便宜上의 延長行爲이다 그와 證據를 搜索하느냐? 裁判은 事實을 確定하고 確定된 事實에 對하야 法律을 妥當하게 適用하는데 잇슴으로 事實確定의 基礎를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司法警察官이 證據를 具體的材料에 依據하지 안코 被疑者의 自白에 依據하려함은 稚劣한 搜索方針이며 被疑者의 自白을 强要키 爲하야 法律上으로 確實히 刑으로서 禁制되여잇고 人道的으로도 唾棄할 蠻風인 拷問에 訴하는것은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 國家가 賦與한 權力을 濫用함으로서 도리혀 社會秩序를 紊亂하는 刑事上 責任도 크려니와 더욱이 그 犯罪가 確實한지 아니한지 裁判手續도밟기前에 公刑에 處하기 앞서 私刑을 加한다는 것은 道德的으로도 非難맛어야 할 非人道的行爲라할것이다

四

따라서 拷問은 何等의 法律的 根據업는 個人의 「린치」이다 이 「린치」함에도 不拘하고 이 「린치」는 法治國인 現代社會에 依然存在한다 或은 被疑者로하여금 罪의 事實을 自白케하라는 意圖에서 甚至於는 一種原始的復讐觀念에서 이러한 拷問이 存在한다 或은 拷問으로도서 一種의 略式의 行刑과 가치 생각하야 犯罪者를 懲戒하고 「한번혼줄내어 다시는 그런짓을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하야 敢行되는 때도 잇다 그러나 이것은 明白히 職權의 濫用이요 裁判官의 職能을 私行하는 犯罪行爲다 우리는 이러한 拷問事件이 反覆되지 안키를 바라며 이것을 契機로 犯罪搜索의 方法이 文明化하고 科學化하는데 一層의 刷新이 잇기를 바라는 者다

黃郛에게는 無權限 國府相對가 當然

日中政治協定에 關하야

孫科重要意見發表

【聯合東京七日發】 七日某處着電에 依하면 去四日孫科는 上海에서 次와如한 重要意見을 發表하얏다

日本이 有吉公使를 北上시켜 黃郛와의 間에 政治協定을 行하게 하려한다 黃郛의 權限은 全然地方的의 것에 限定되여 잇서서 如斯한 協定을 行할 資格은 업다 日本이 萬一 日中停戰後의 政治協定을 行하려고 할것 갓트면 當然히 南京政府와의 間에 行할것인데 南京政府는 如斯한 協定折衝은 倫敦의 國際經濟會議의 成行을 본後에 開始할터이다

蔣介石의 密令으로 排日運動嚴禁

吳鐵城排日團體를 解散

【上海六日後電通】 停戰協定成立에 따라 蔣介石으로부터 上海市長吳鐵城에 對하야 排日運動嚴禁의 密令이 發하게되고 吳市長은 即時排日團體의 解散을 命令함과 同時에 市黨部를 爲始하야 各團體에 對하야 對日感情을 阻害할 一切의 言動을 嚴禁하는 旨通達하엿다

湖北에도 禁止

【漢口七日發電通】 湖北綏靖公署及省政府에서는 五日附로 抗日各種團體의 即時解散及新聞紙上에 敵軍等의 字句를 用치말나는 旨를 命하고 日本과의 誤解發生을 避하라는 命을 하얏다

藏相閣僚에게 豫算編成大綱

◇…意見書를 提示

【東京六日發電通】 高橋藏相은 六日의 閣議席上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의 大綱을 決定하고 如左의 意見書를 各閣僚에 提示하엿다

◇豫算編成의 大綱에 關한 件

從來의 豫算編成의 方式은 爲先各省으로부터 槪算要求를 大藏省에 하고 이것에 對하야 大藏省主計局은 各省과 折衝을 거듭하야 査定原案을 作成하고 大藏省은 이것에 따러 協議를 了하고 藏相은 이것을 閣議에 提出하는 것이 맛당하다 此際藏相과 各省大臣과의 間에 更히 復活要求에 對하야 折衝을 거듭하여 玆에 豫算決定을 보게될모양이다

그런데 最初各省으로부터의 槪算要求는 專혀 各省獨自의 立場에서 實施를 希望하는 것을 羅列하고 國家全體의 立場으로부터 事業의 輕重、財政의 現狀에 빗추어 이 取捨選擇은 等閑에 附하는 傾向이 잇다 甚하야는 各省은 오직 自省豫算의 만케하기 爲하야 努力하야 所謂豫算分捕의 弊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昨今가튼 政府歲入不足이 顯著한 際 各省相互히 豫算獲得에 沒頭한다면 適當한 豫算編成은 困難하게될뿐아니라 累를 後代에 끼칠 念慮가 업다고 말하지 아니치 못할것이다 故로 今後는 豫算編成에 着手하기 前 閣議에서 國家的 見地에 따러 重要政策에 關한 方針을 議하고 一面收入狀況及公債發行의 民間에 及하는 影響에 對하야 審査稱量을 急히 하는 同時에 他面 國家의 大局으로부터 打算하며 此、財源을 公債에 求하드래도 그 財源의 計上을 必要로하는 事項에 對하야 그 大綱을 決定하여두며 各省은 이 方針에 따러 大藏省에 槪算의 要求를 하고 該決定에 不反하는 要求를 提出하도록 하며 더러 分限이 有한 國家의 財力을 有効適切한 方面에 利用하는 方策을 講究할 必要가 잇다고 밋는다 此는 國民으로 하여금 納附하는 租稅其他財源이 가장 經濟的이며 또 刻下最大의 急務에 充當되고 잇다는 信念을 갓게하며 兼하야 統一脈絡잇는 政治를 實行하기爲하여 가장 必要하다고 밋는다 따라서 右意見을 提出하야 閣僚諸君과 深甚한 考慮를 바라며 사금 協力을 切望하는바이다

北滿鐵紛爭解決 滿蘇委員會

日哈爾濱에 設置

【聯合東京七日發】 七日新京栗原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의 報告에 依하면 北滿鐵道並「우스리」鐵道의 連絡封鎖問題에 關하여 北鐵副理事長「구스넷오푸」氏와 李督辦과의 折衝의 結果蘇聯側으로부터 鐵道紛爭解決의 滿蘇共同委員會設置方을 提議하여 滿洲國側도 原則的으로 이것에 同意를 與하얏다고 따러서 右委員會는 近近哈爾濱에 設置될모양이다

宇垣總督陸相과 一兩日中에 會見

【聯合東京七日發】 宇垣總督은 八日又는九日荒木陸相을 訪問하고 北朝鮮國境方面의 警備現狀報告를 中心으로 朝鮮將來의 對滿、對中方針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行의 豫定인바 右會見은 最近宇垣總督對軍部關係의 好轉說이 擡頭하는 此際政治的으로 重要視되다

倫敦經濟會議 獨代表決定

【聯合伯林七日發】 倫敦經濟會議獨逸代表는 七日左와 如히 正式으로 決定하엿다

首席 全權 노일라―드男
全權 藏相 크로직크伯
同 農相 쑤―겐벨히博士
同 國立銀行總裁 샤―하트博士
同『항부르그』市長크록만氏
同 駐英大使 『헷슈』氏
外一名

아물河岸地方에 猶太人共和國建設

在米猶太人의 經濟的援助로

利權의 獲得을 計劃

【奉天七日發電通】 아물地方의 빌비즈아레로부터 某白系露人의 許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目下黑河地方에 約一萬의 猶太系露人이 잇서 在紐育市猶太人富豪의 經濟的援助에 依하야 감차카官吏의 名下에 빌비즈안(아물河流域地帶)의 商農業都市附近에 猶太人만으로서 共和國을 建設하려고 計劃하고 頻繁히 米國과 連絡을 取하고잇다 그리고 在米猶太人資本家는 資本的援助에 依하야 新共和國의 建設의 利權即鐵道工場등의 建設의 利權을 獲得하려는 것이라 한다

002198

【時事漫畫】 鳩山文相의 勇斷…金華…

印度의 新課稅는 實質上排日關稅

公電到着한後抗議發送

報復的手段을 講究

【東京七日發電通】 印度政府가 六日公布한 綿製品에 對한 新關稅率引上問題에 關하야는 七日正午까지 外務省에 何等公電이 업스나 今回의 突然新稅率實施는 爲替의 暴落對策이라고 稱하나 實質上으로 排日關稅임은 明白함으로 公電到着을 待하야 印度政府에 抗議를 發하기로 內定하고 잇는데 一方五月十二日 倫敦에서 成立된 關稅休日決議의 權利에 依하야 應當에 依하야는 報復的行爲를 講하게될는지도 모르겟다

當業者大憤慨

【東京七日發電通】 英政府는 過般日英兩國의 經濟的協調를 圖하는 趣旨에서 日本에 對하야 附國民間協議會開催를 提唱하야 現在本問題가 兩國間에 進行過程임에 不拘하고 突如印度政府로 하야금 日本綿布에 對한 禁止的關稅引上을 斷行케 한것은 全然國際親善의 [illegible]行爲라고 日本當業者는 極度로 憤慨하고 이以上은 日英民間商議도 必要업다는 强硬意見을 有하고잇다

宇垣總督 中島商相訪問

【聯合東京七日發】 宇垣總督은 七日午前十時商相官邸에 中島商相을 訪問하고 上京한 인사를 한다음 朝鮮의 各種産業의 狀況을 報告 將來의 日本朝鮮滿洲産業統制及明年度豫算에 計上할 産金獎勵及金鑛試掘獎勵策其他에 對하야 約一時間協議를 遂行하고 同十一時辭去하엿다

齋藤首相은 安心코 政策遂行決意

政友會의 態度를 알고

【聯合東京七日發】 齋藤首相은 政友會의 態度에 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든바 政友會의 對政府態度도 自重派과 急進二流로 分裂되여 그抗爭은 漸次로 深刻化되고 따라 幹部의 責任論乃至鈴木總裁의 不信任問題에까지 發展될 形勢를 보이나 急進派나 自重派나 모다 黨을 分裂케하기는 不欲함으로 對政府態度도 直時政府와 絶緣하든가 倒閣에 着手하든가 하는데까지는 나가지 안흘것은 明瞭하게 되엿슴으로 드되여 [illegible]을 遂行하기로 決意를 굿게하고 六日은 高橋藏相과 會見하고 豫算編成、政策遂行에 對하야 協議한바 잇섯스나 더욱 七日은 病中의 山本內相을 訪問하고 六月의 閣議에서 高橋藏相으로부터 提議된 豫算編成大綱에 對하야 說明한後 政策遂行에 關한 重要打合을 行한바 齋藤首相은 荒木陸相의 進言도 잇는 一便 非常政局에 適當한 政策을 遂行할 豫算을 編成하야 來議會에 進出하려고 愼重對策을 考究하고 잇다

宇垣朝鮮總督 荒木陸相訪問

【東京七日發電通】 宇垣總督은 上京以來 朝鮮의 農村振興策其他 一般産業開發問題等에 關한 政府의 諒解를 求하기爲하여 齋藤首相을 爲始하야 各閣僚와 會見을 遂行하는 바잇섯다 明日中에는 陸相과 會見할 豫定인데 種種의 便宜上 故金谷大將의 葬儀終了後 九日又는 十日에 行하게 되엿다 右會見의 際宇垣總督으로부터 北朝鮮地方並國境方面의 警備狀況及 今後對滿警戒에 處할 總督府로서의 方針等을 說明한다음 諒解를 求하기로 되여잇다

京大事件의 眞相

文部省發表

瀧川敎授는 確實한 共産主義者

【東京七日發電通】 文部省에서는 京大問題의 眞相及今日外지의 經過에 對하야 內容을 非公式으로 發表할 必要가 잇다고 文部首腦部間에서 種種考慮하고 잇섯는데 七日午後伊藤學生部長으로부터 談話의 形式으로 大要左와 如히 發表하고 大學敎授等 專門家가 아니라고 稱하나 文部省은 明白히 赤化敎授로 認하는 所以를 明白히 하얏나

瀧川敎授의 基本思想은 맑스主義이다 社會의 經濟機構의 革命的變革에 依치안으면 刑의 減少消滅을 期치못하다고 人의 道德性을 無視하고 其立場으로 刑法學說을 祖述하고 犯罪는 刑罰의 威力에 依하야 減少消滅되지 안는다고 한것은 맑스主義인것은 明白하다 更히 刑罰에 依하야 犯罪를 업시하기는 不可能하다 刑罰이 업는 社會를 前提로 하야 可能하다고 하는것은 經濟機構의 變革을 第一要件으로 하여 잇고 漸進的改造가 아니오 革命的改造를 主唱하고 잇서 明白히 맑스主義的이다 又刑法의 變遷過程을 封建主義의 自由競爭段階로 다음 資本主義의 獨占段階로 다시 最高의 發展段階에 達한 資本主義의 必然的崩壞過程이라고 하는 經濟的發展過程으로 說明하고 잇는 것은 唯物主觀的見解임은 明白하다 又刑法各論中內亂罪를 說明하되 이기면 官軍지며는 賊 式의 說明을 하고 잇는것 又姦通罪에 對하야 막스의 階級說에 依한 婚姻觀으로 醇風美俗과 反한다 以上과 如한것은 人格陶冶國家思想의 涵養을 第一로 하는 大學令에 反한것은 明白하다

米經濟會議에 銀價引上案提出

【「프레지덴트·루즈벨트」號六日發電通】 世界經濟會議 米全權「헐」國務長官一行을 태인本船 數回에 亘하야 米代表만의 懇談會合을 하여왓는데 一行이 出發前大統領과의 間에 非公式이나마 一致한 意見의 結果로서 米政府는 經濟會議의 푸로그람의 不可分的議題의 一로서 銀價引上案을 提出할 意向이란 旨를 發表하엿다

即米國의 試案에 依하면 金準備率을 最低二割五分程度에 引下하야 事實上의 銀準備率을 五分으로하고 其範圍에서의 選擇은 各國中央銀行의 隨意로 할 此等의 各中央銀行은 銀價가 低落하면 이것을 買하고 騰貴하면 賣한다는 方針에 依하야 準備高는 常히 金貨額의 五分을 維持하라고 하는 것으로 此方法에 依하면 銀價를 安定식힘과 同時에 金의 節約을 하고 銀價의 引上을 할 一擧兩得의 策이라고 觀測된다 더욱 上院外交委員長「핏트맨」氏는 世界經濟會議에서 金銀貨比率에 關하야 世界共通의 協定成立의 可能性이 잇다고 豫言하엿다

史上의 叛逆兒【八】

稱國建元한 快傑

羅朝에 叛旗든 金憲昌

文一平

◇

新羅에는 代表的 叛逆兒를 꼽자면 누구보다 第一指를 屈할가

社會로 굴거지게된 反面에 人物도 잘아지게된 感이 잇는 新羅國情으로서는 大英傑도 잇슬수 업는同時에 大叛逆兒도 잇슬수 업다

그러나 大叛逆兒가 나지못한 대신에 小叛逆兒가 만히 나게되어 叛逆兒數로는 新羅가 三國중 最高位를 차지하야 句麗百濟의 總合한 그것 보담도 오히려 一倍가 더 만흔것이다

그러면 그들 叛逆兒중에서 적이 눈에 띄우는 人物이 업겟는가

아니다 新羅에도 업는것이 아니다 一方에 雄據하야 王命을 拒絶하고 堂堂하게 稱國建元한者로 말하면 甄萱、弓裔以前에는 오즉 憲昌一人이 잇슬뿐이니 나는 이제 그를 新羅叛逆兒중의 一快傑로 推擧함에 躊躇하지아니한다

◇

新羅統一後에 百餘年昇平이 持續하매 安逸에 흘러난 支配階級은 自己네끼리 權勢를 다투기 시작하야 惠恭王以後六十餘年間은 王位爭奪이 은키지 아니하엿스며 이때문에 主權이 薄弱하야지고 主權이 薄弱하야진 結果로해서 國家의 分解作用을 誘致하야 地方의 叛亂이 자주 일어나게되엇고 叛亂이 일어날스록、國命이 縮小하게되어 末路에 가서는 統一國인 新羅가 다시三分國으로 되엇다가 畢竟滅亡하고 마랏는데 憲昌은 新羅內亂의 氣運이 王位爭奪로부터 차차 地方割據에 推移하려는 過渡時期에 생겨난 人物이니만치 그의 叛逆은 一便으로 王位爭奪의 餘波를 니여 一便으로 地方割據의 先驅를 지엇다고 볼수잇다.

◇

憲昌은 新羅王族으로 그 아버지의 일홈은 周元이다 周元이 일즉 新羅王이 되려다가 競爭에 떠러젓는데 憲昌은 이러케 그 아버지周元의 낙검되지 못한것에 對하야 一大不平을 품고마침내 憲德王十四年에 熊川州인그治所에서 叛旗를 들고 일어나게 되엇다 그는 熊川州를 中心으로 그 鄰四州를 連結하야 獨立國家를 建設할새 國號를 長安이라 하고 年號를 慶雲이라하니 이때까지 新羅叛逆史에서 볼수업는 新記錄을 지엿다 特히 年號로말하면 獨立國帝王이 으레히 稱하는것으로 新羅王廷에서도 敢히 쓰지못하는것을 一個叛徒가 쓰게된은 憲昌의그 特立的 氣魄은 아로써 推察할수 잇거니와 後來弓裔의徒가 建元한것도 或은 이 憲昌에게서 본뜬것이 아인가 하고 생각할때 한번더 憲昌의 異彩잇는 人物임을 首肯케한다

◇

憲昌이 敗北한뒤 數年에 그의 아들梵文이 또그 同志로더부러 共謀하야 漢陽에서 울을 두려는 意圖下에 叛逆을 일우키다가 그만 또 誅戮을 當하고 말앗다 그러나 일즉 憲昌에게서 發源된 叛逆의精神이 여기도 번적임을 보겟다

不承認報告審議의 諮問委員會開會

【쥬네브七日發電通】 聯盟日中紛爭問題諮問委員會는 滿洲國不承認報告書의 採否를 審議코저 七日午前十時五分(日本時間午後六時五分)부터 랑게氏(諾威代表) 司會下에 事務局에서 開會되엿다

大藏省證券 一億圓發行

【東京七日發電通】 大藏省發表 ▲政府는 國庫出納上의 必要로 八日日本銀行引受로 一般會計分大藏省證券額面一億圓을 發行키로 決하얏다 日步六厘이다

人事消息

▲蘇完奎氏(辯護士) 十二日午後二時 食道園에서 朴聖貝孃과 結婚式擧行

夕刊後市況

東京短期

	引	高	低
東新	二〇〇、三	二〇三、二	二〇〇、三

大阪短期寄終氣配

大新	二〇〇	(三低)
鐘新	一四〇	(一低)
日產	八八、三	(六低)
東新	二〇〇、五	(九低)

不再錄號外發行

本社에서는 蔣介石의 被襲事件과 西大門署新首事件에 關하야 第七日附로 第一回及第二回의 號外를 發行하얏습니다

朝鮮日報社 白

近代的高級化粧品
三好化粧料
五大博士責任證明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女王가튼化粧美
三年의美·香·色
장미가튼芳香
보들보들한觸感
美肌가튼自然色
近代女性의 魅力잇는化粧美
明朗한化粧美는 三好化粧品의 獨特하히!!
本舖 京城府 三好化粧品本舖
鮮內支店 五十餘處
海外支店 三處

產金家의 福音
高價 買入
京城 金地金分析 金銀
合資會社 杉山商會

男子部(五〇) 女子部(三〇) 各商簿記科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 ◉新學期開始六月十日(第三部) ◉學則要貳錢切手
四十一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七四番地(京城驛前)(ソウルビルヂング)

▲月刊雜誌【科學朝鮮】創刊號出來 其他圖書販賣
▲鑛山測量製圖、鑛石鑑定分析、鑛業出願、水利水車堤防에 關한 設計
▲發明特許實用新案、意匠及、商標登錄出願便法指導
照會歡迎 京城公平洞一一九 發明學會

六月七日晝間부터 猛烈特別公開 特別料金
密林의 王者 全九卷
幽靈大統領 全十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六月六日晝間映畵日延週間 大衆=階上 二十錢 階下 十錢均一
◉大유니버ー살 高原强襲隊 全六卷
◉大유니버ー살 怒濤의 女 全五卷
R、K、O、超野獸
世道人心
高級常設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番

『愛兒』惡疾治療慾에 無識한『慈父』大罪

嗚呼, 이 迷信! 이 無智! 여

斬頭事件大團圓

하동안 세상사람의이목을 놀내게한 어린아이머리베어버린사건은 사건발생이후 이십삼일만인 칠일에 이르러 완전히해결되엇다 베어버린머리토막은 부외아현리(阿峴里)산(山)칠번디의이십일호에사는 한창우(韓昌愚)의 죽은딸 귀옥(貴玉)의것이오 그머리토막을 베어낸사람은 역시 한창우의집아래 박에살고잇는 배구석(裵九錫)으로 판명되엇고 그머리토막의골을 섀어먹은사람은 부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일백륙십번디 조태원(趙泰元)의 엿방(飴店)에사는 엿장사 윤명구(尹明九)의아들 천구(千求)(一○)인것으로 판명되엇다 그런하데 어린아이의시체의 머리토막을베어낸 배구석은 사오년전부터 친분이잇는 윤명구의 부탁을 바닷든바 윤명구의아들 천구는 다년전부터 간질알병(癎疾)으로 고생하든터에 어린아이의 머리골을 먹으면 낫는다는 미신의말을 듯고서 아들의병을 항상 걱정하든 윤명구는 마츰 한창우의딸 귀옥의 죽은시체를 배구석이가 공동묘지에 갓다가 파뭇다는 말을듯고 그에게가만히 부탁하야 그러한범행을 하게한것이라 한다

胴體, 犯人同時入手 一日間自白誘導

事件解決의 大綱經路

경찰에서 범인 배구석을 검거하기는 오일중이엇스나 그때는 단순히 참고인의 정도로 취조의결과가 여러가지로 혐의가 깁허가게되여 들면 수사방침을 고치어 배구석을 중심으로 여러가지로 증거를 수집하기시작하엿다 즉 피해자인 한창우의딸 귀옥을 무든무덤을 아는사람으로는 한창우와 그형 한성우외에 배구석 박게업섯다 그러기 더욱의심을 바더 취조의 결과 그는 범행의일부를 자백하지엿스나 과연 그목과 그골등이가 동일한사람의것인가가 미심해보이는점도 업지안어 대학병원에서 해부한결과 의심업는 동일인이라고 항으로 경찰에서는 다시 배구석을 취조하게되매 이에 배구석도 하는수업시 그목은 윤명구에게 골을내 막게하엿다고 자백하야 칠일후 비서반경 윤명구의 가족도 모다 검거케되여 사건의 전모를 엇게된것이라

解剖結果로 追窮

共犯等겨우供述

左右托言튼裵가 吐眞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맨 처음에 이사건이 발생하든즉시로 그머리토막과 그머리토막을 버린현장 부근길바닥에 흘려잇는 피흔적을 검시한 국방(國房)청대조교수의 감식한바에 의지하야 그머리토막는 산아이의 머리를베인것이며 흘튼피는 을은 죽인지 열시간이나된바 피이것으로만 확신하고 십여일동안을 죽ㅣ계속하야 산아이 일허버린 사람이 업는가하고 가진방법으로 수사를해왓스나 못웃내 실패되고말앗다 그래서 이케는 다시 그감식에대한 의문을품고 송래취해오든 수사방법과는 반대로 그사건발생한때로부터 사오일이전에 죽은 아이들을 조사하야 그무덤을 파보기로하얏는데 마츰 컨귀한창우의딸 귀옥이가 지난달 십일에 죽어서 십일일에 염리(鹽里)공동묘지에 매장하얏다는 말을 듯고 지난오일밤에 서대문주사네가 발동에출동하야 파본결과 과연머리토막이 부러잇지 안어한 시체가 발견되엇다 그래서 이어서 한창우집을 발동에 명취서 한창우부부와 동거하든 배구석의 내외를 검속하여다가노코 엄중히 취조한결과 칠일오후 세시반경에 이르러 배구석은 자긔가 그범행자임을 자백하는동시에 머리골을 내어먹은사람은 컨귀 윤명구의아들 천구란것까지도 알활부렷다 이사실을 알게되자 수사대는 네시경에 윤명구의집으로 출동하야 윤명구의부자와 윤명구의안해 왕씨(王氏)와 윤명구의주인 조태원(趙泰元)까지 컨부잡아다가 취조한결과 컨후범죄컨말을 컨부자백한것이다

證據엇고는 現場을檢證

裵九錫을帶同코

배구석을 취조한결과 그의범행인것이 명백하여졋슴으로 수사대는 칠일오후 여섯시경에는 갑작이 극도로긴장하야 경찰부 케칠백십오호자동차를 형사실압헤 대여노코 주밀한감시로 한고의첫삼에 검은조이를 입은배구석을 보리집모자로 푹눌너씌워가지고 자동차뒷칸 매복관에 안커노은후 하가(下家)사법주임과 어견(二見)경부와 형사세명의 호위로 범인의 압출을숨겨가면서 자동차를 모라 머리토막버린현장으로 달리여가서 약십분동안 현장검증(檢證)을 하고서 다시 배구석의 본집으로 달려가서 범행한현장과 평취하고 동일공시 오십분경에 경찰서에 도라갓섯다 그리하고서는 다시한층더 자세한취조를 진행하얏다

殺人强盜에 死刑言渡

【平壤】 평양복심법원에서는 남일강도살인죄고 평북초산군 남면귀평동(平北楚山郡南面龜坪洞)안치일(安正一)(二元)에게 사형(死刑) 공범 신동주(申東周)(二五)에게 무긔(無期)징역판결을 나리엿다 주범안치일은 재무변상에 공하여 공범신동주와 공모하여 소화륙년십일월 삼십일밤주에 평북벽동군 가별면가상동(平北碧潼郡加別面 加上洞)백두산맥고봉(白頭山脈高峰)에서 시장(市場)에서 돌아오는 초산군초산면직동(楚山郡楚山面直洞)김중세(金仲世)(六○)를 습격하고 곤봉으로 두부를 타하여 혼도케한후 다시목을매여죽인후 동인소유의 현금백륙원을 강탈하여엇다는 사실 이라한다

아들에게는『慈父』나 世上에는『夜叉』노릇

平和한家庭이病子로殺風景

그罪를犯行하기까지

◇……서대문경찰서관내의 어린애목장은 사건당일저녁까지에 완전히 해결을보앗다 그결과 이외에도 범죄의피면에는 아들의병을 마음압허하든 부모의무지몽매한『사랑』이 숨어잇는것을 발견케되엇다

◇……문제의 아버지인 죽첨정이정목 일백륙십사번지 엿장사 조태원(趙泰元)의집에 기숙하면서 엿장사를하든 윤명구(尹明九)는 충청도청주(淸州) 사람으로 작년팔월에 그처왕씨(王氏)와 장남천구(千求)(一○)와 이남정구(正求)(一○)왕구(王九)(七)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컨긔엿장사의집에 조그마한방을 빌어잇으면서 자신과 그장남이 엿장사 행상을하며 살어왓다

◇……엿장사의 살림이라 대단히 어려운 살림이엇다 비석구를 거느리고 상경하엿든 윤명구는 얼마되지안는 그날그날의 수입으로 간신히 가족을 버려예이는것밧게 여념이 업섯다 술도안먹고 빈한한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말성업시 살어왓다 그러나 그가청에는 빈한보다도 더욱 무서운 불안의씨가 잇섯다 그것은 그의맛아들 천구가 어렷슬때 부터 간질로 고생하고 잇다는것이다 져우한간밧게 안되는 좁은 방에서 다섯가족이 들어잇서 부모가 아들을 어루만지고 아들이 부모를위하여 세상고생을 니즈려 하다가도 맛아들이 한번압에서 거품을 물고 눈을뒤집어가지고 지랄을 버릴즈음 그집안은 사람사는집 안갓지안엇다 살풍경이 되는것이엇다 그때마다 아들의 고생하는 그광경을 보는부모는 엇더케하면 아들의 병을 고치어주겟느냐 하는 생각이 뭇득뭇득 가슴에 살어올라왓다 대(代)를 니을 귀중한 아들의 고생을 참아는으로 볼수업시 생각하든 남지에 어데동는것이 사람의골수를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듯은 모양이엇다

◇……그리하야 사람의 골을 구하든중 사건의 목베인 장본인인 배구석(裵九錫)에게 부탁하야 어린애기의 목을 잘러오게까지 하엿든것이다 부모된자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쓰든 인정은 한번귀를기우리게 하는것이 업지안타 그러나 그의무지몽매는 바람결가치 떠도는 세상에 및지못할 마신(迷信)의 시각을 미덧든것이 오늘의 잔인한범죄의씨를 뿌리고말엇든것이다 이가치하야 배석구에게서 바든 사람의머리를 쉬고 골을내어 먹여서 안될 그것을 그아들에게 먹이되게엿든것이다

이날의 點景

臆測區區한路邊

喜色띄인署內

사건이 해결되든 칠일의 서대문경찰서 부근일대는 혼잡또혼잡이잇다 사건의발생이 바로 경찰서부근이요 범인이 살든곳이 또 그부근인관게로 경찰이 다대마력을 다하야 사방으로 자동차 컨차등을 달리며 또그뒤로 신문긔자들이 쉰임업시 드나들게 되니 네거리에 오고가든 사람들은 사건이 엇더케 되는가하여 모다걸음을멈추고 웅성거리며 한두사람이 모이기만하여도『범인이 판명되엿다지?』하면서 이십여일동안 불안과 의심속에 지내든 마음을 푸는듯 고개를 쳣덕이고잇섯다 그러고 이날의 경찰서― 이십여일간을 두고 글자그대로 불면불휴로 사건수사에 힘써오든 경찰서원의 얼골에는 모다 희색이 떠돌앗다 서장이며 형사과장은 아직도『글세 사건이 해결은 되여가나 아직 말할수업소』하며 더말할수업다는듯이 고개를 흔들번서도 역시 희색이 만면하여『래일석간신문쯤에는 자세히 발표하지요』하며 웃는다 한편으로는 과자봉지가 들어오다 또무엇이 들어온다! 형사들은 이케는 좀잡이나자볼가!』하며 한숨을 푹내쉬이고잇섯다

四年前에上京 一家五人이生活

犯人裵의家庭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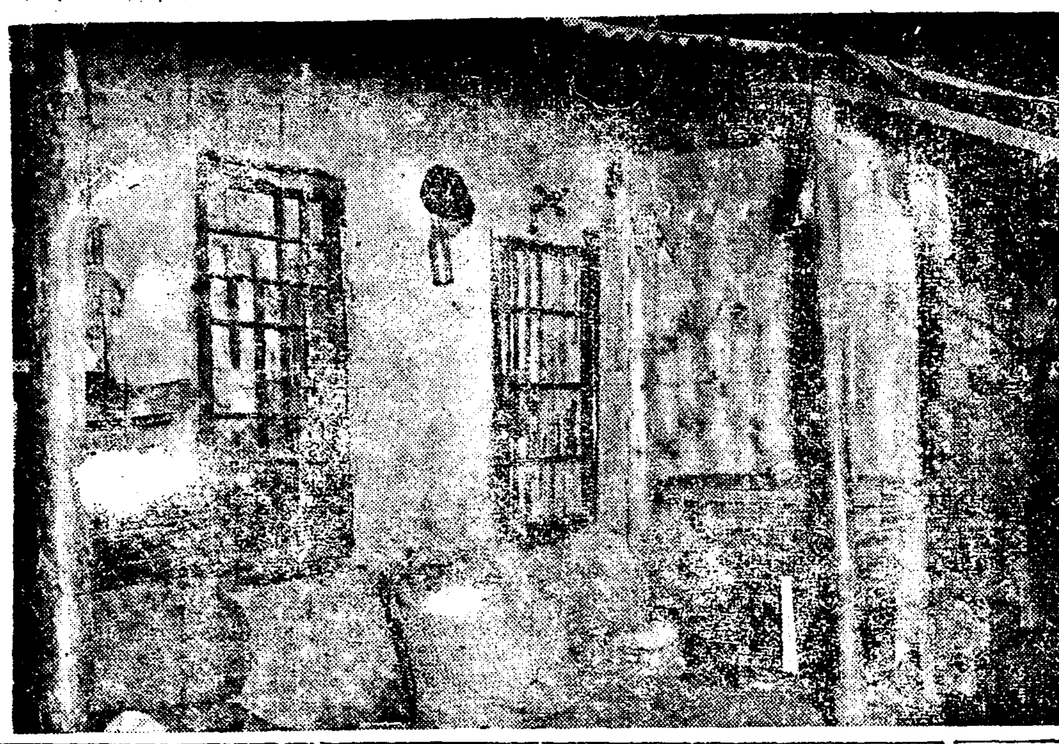
범인배구석(裵九錫)(三一)은 어떠한사람으로 어떠케 지내왓는가? 그는 충청북도음성군 맹동면 쌍정리(陰城郡孟東面雙井里)사람으로 약사년전에 버리길을 차저 서울에 올라와서 이래 죽첨정이정목 공업상회(共業商會)에서 석탄배달부로 직업을 삼아 한달에 평균 약십오원의 수입으로 안해 고씨(高氏)(二六)와 맛딸분남(分任)(八) 둘재딸 분순(分順)(五)과 아들순원(順元)(三)등 다섯식구가 먹고살아왓다한다 처음에 서울에와서 약삼년동안은 죽첨정삼정목 이백오십번디에서 살다가 작년십이월하순부터 현주소로 이사하야왓다 그의 고향에는 친형 배홍석(裵洪錫)과 족하들이 잇슬뿐이고 부모는 죽고 업다한다 그의안해 고씨는 남편보다 압서서 륙일에 석방되엇는데 칠일오후여덜시경에 서대문 경찰서압헤가서 남편이 바금범인으로 관청되어잇슴도 알지못하고 금명간에 나오게되지안을가하고 근심하다가 자긔집으로 도라갓다

『純直한性格 愚鈍한人間』

共業社主人 談

배구석이 삼사년동안 고용사리로 살고잇든 공업상회주인 최씨(崔氏)는 다음과가치 말하야다

배구석은 삼년전부터 우리상회에서 석탄배달부로 잇섯왓는데 이십여명일꾼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엇소 말하자면 좀부족한 사람이라 할수잇소이다 술과담배는 컨연 먹지안코 첩심은 대개떡을 사먹고 지냇습니다 우리는 그사람을 퍽순직한사람으로 보앗습니다 삼년동안을 일을보고잇섯지마는 게름 부리는법은 조금도 업섯소이다 운운



◇사진은 문제의 엿도가 ×표는 윤명구가 사는방

五、一五海軍軍法會 辯護士와協議會

來十日午後東京서

【東京七日發電通】 오일오사건의 해군측피고 고하중위(古賀中尉)이하십명에대한 심리를 하기위한 동경해군 군법회의는 군령부에서 보낸 고수(高須)대좌를 판사장(判士長)으로 하고 진행케된바 군법회의와 피고측 변호사와의 준비타협회를 십일오후 다섯시부터 지구(芝區)수교사(水交社)에서 하기로된바 당일은 공판의일정과 심리의 진행방법과 긔록등사등 만반의 타협을 할터인바 목하의 정세로는 대체 팔월이십칠일경부터 구월사 오일경까지에 사실심리를 낫추고 구월중순에 결심식힐의향가튼데 십일의회의에는 변호인측희망으로 피고인들의 동창생들을 불러서 피고의 성행(性行)을 듯기로되엿다고한다

城東出沒의强盜

昨夜本町署에 被逮

新堂里安岩里旭町事件의犯人

十年役치른前科者

지난삼일 시내본정서관내 욱정(旭町)일정목 심리교양원을 경영하든 산구륜삼랑(山口輪三郞)방에 강도가 침입하야 시계두개와 현금오원을 강탈 하여엇든사건이 잇은후 본정경찰 에서는 련일 백여명의 경관대가 밤마다 출동하야 활동중 칠일밤 십일시반경에 순행순사가 광희문(光熙門)박게서 수상한사람을 발견하고 조사하엿든니 의외에도 그가 욱정강도이엇든것이 판명되는동시에 오월사일새벽 시외신당리(新堂里)산륙번지 일본인소부천(小部川)방에 침입하여 현금십륙원을 강탈하엿든것과 또 오월십일일 새벽한시반 시외안암리(安岩里)식산은행(殖銀)운동장 선수합숙소에 들어가 현금 십원과 시계를 강탈하엿든 사실도 자백하야 성동일대를 소란케하든 문케의 강도사건이 일시에 해결되엿다 범인은 경긔도 김포군양동면여창리(金浦郡 陽洞面麗倉里)에 본적을두고 신당리(新堂里)사십륙번지의일 김원식(金元植)방에 류하든 김사원(金士元)(四○)으로 전과경도일범 강도일범인데 그는 강도상인죄로 징역십년언도를 밧고 복역중 지난 이월십일에 함흥(咸興)형무소에서 나와 이래 아무직업이 업시 천긔주소에 거주하며 강도를하여 왓든것이라는데

朝鮮서처음되는 延禧의露天劇場

연희전문학교에서 삼천오백원의예산으로서운 로천극장(露天劇場)이 준공되엇슴으로 작칠일오후여덟시부터 락성긔렴음악회를 개최하얏는데 조선에잇서서 어련한 로천극장은 처음이라하며 당일에는 동교어비신(魚丕信)교장의 개회사 가잇섯고 리춘호(李春昊)교수의 공사보고가 잇슨다음 래빈의축사 가지나매 동교교가(校歌)로서 제일부를 마치고 이부에 드러가 편현악 합창독주창등 자미잇는 연주가잇섯다

火藥庫爆發 濱松全市火海化

混雜을極하야 詳細는未判

飛行第七聯隊에變事

【聯合靜岡七日發至急報】 정강경찰부착전(靜岡警察部着電) 칠일오후여덟시삼십오분과 동사십분에 두번이나 빈송(濱松)비행케칠련대화약고(火藥庫)가 대폭성파한채 폭발하야 빈송(濱松)컨시가 흙진동식키고 폭긜이 충천(冲天)하야 커참한광경을 이루웟스며 사상자도 다수될모양이나 아직상세한것은 알수업다한다

【聯合濱松七日發至急報】 빈송비행케칠련대는 화약고의 폭발과동시에 대화가 일어낫는데 폭발한곳은 만흔탄환이 잇는 폭탄창고인가닭에 폭발하는 소리는 마치 화산의폭발과 갓타야 컨시가 진동하는으로 한소리에 컨시민은 크게놀래어 문밧으로 뛰어나와 우선피난하엿다 빈송시와 폭발한현장의거리는 상당히 먼까닭에 자세한것은 아지못하고잇다 헌병분대 빈송경찰서 재향군인 소방대는 현장에 급행하고 빈송비행대는 대폭발과동시에 대호장을 청하고 비행대의 영문(營門)을 굿게닷고 외부와의 출입을막고 경게를 엄중이하고잇다

全市沸騰

詳細難辨

【聯合靜岡七日發至急報】 칠일오후여덜시 삼십오분과 동사십분의 두차례식이나 빈송비행케칠련대(濱松飛行隊)의 화약고(火藥庫)가 큰폭음을내며 대폭발하야 빈송진시를 진감시켜서 그여진은 정강시(靜岡市)에서지 울리고 그화렴은 한울에 사모친것이 정강시에서 바라보혓다 다수한부상자가 잇슬모양이고 상세는 아직판명되지 안엇다 오후아홉시 이십오분에 다시케이차케삼차의 폭발이 잇섯다

火藥庫는 連三回나爆發

停留所는 微塵化

【聯合濱松七日發】 빈송비행(濱松飛行)케칠련대의 화약고폭발은 칠일오후여덜시 삼십오분경에 동비행대에서 폭탄을 운반중 한개가 돌연이 폭발하고 니어 화약고가 연소하고 화약고가 폭발하야 동련대 건물에 불이옮마 연소중(오후아홉시반)인바 화약고는 서번채가 폭발하엿다 동련대에서는 극히 위험한 가운데에 손을대일생각도 못하고 수수방관할분이바 목하는 사상자의 구호는 불가능한상태에잇다 동련대에 양헤잇는 경편철도정류장은 폭발하야 산산히 부서지고 빈송 컨시는 마치 불바다에 엇다

童謠音樂舞踊

今夜侍天敎서

부내견지동에잇는 시천교 소년회(侍天敎少年會)에서는 팔일밤 여덟시부터 시천교당(侍天敎堂)에서 소년회의 부흥을 긔념하야 동요음악을 보급하고저 하기동요음악무용회(夏季童謠音樂舞踊會)를 열터이라는데 입장은 초대권에 한하다고한다

春旱으로牟麥凶作 十五萬石이減收

總督府農務課의發表

가을에 거두엇든 식량은 겨울동안에 다먹고 식량이 궁하야 가나긴 봄날을 우울하게보내는 조선의 하층농민계급에서는 주린배를 움켜쥐고 밀보리 이삭만 잘패어나기를 축원하고잇다 소위 춘궁(春窮)에서 보리고개(麥嶺)란것이 이것인데 칠총독부농무과의 수확예상조사발표에의하면 이들하층농민의 식량보급(補給)에 중대한관계가잇는 밀보리가 작년에비하여 십사만오천 오백여석이나 추수가 줄리라고 한다 원인은 봄에 비가 적어 마음대로 잘아지못한 관계가 크다고한다 이것을 종류대로 갈러보면 보리가 이십칠만륙천여석 밀이 오만륙천여석이 줄고 그대신 쌀보리(裸麥)만은 경작면적(耕作面積)이 늘은관계로 십팔만칠천여석이 늘엇으나 그중에도 중요식량이되는 보리에 이십칠만석이나 감수되엇다는것은 적지안은 타격이라고 보고잇다 그러고 도별로보면 충청북도의 십이만오천석 경긔도에 칠만팔천석 강원도의 사만 사천석 경상분도의 오만팔천석등의 감수가 주목되는것이다 또한 수확예상고는 보리가 칠백칠십이만 칠천여석 밀은 백칠십이만 일천여석 쌀보리는 백이만사천여석등이다

東拓調査도 麥作은大槪不良

苗板用水만은潤澤

오월말현재 동척(東拓) 조선안 각지점관내의 맥작(麥作)묘판(苗板)용수(用水)상황은 다음과 갓다

釜山 이모작답맥작(二毛作畓麥作)은 잘되지안어 이할감수예상이며 일모작(一毛作)은 평년작이고 묘판(苗板)은 잘자라지안어 불량하나 일긔가 회복하여 점차로 순조로되고 물은충분하다

大邱 맥작은 평년작에 갓갑고 컨년보다 일할오부 내외감수될터이다 묘판은 파종과에가 무려 오일내외가 느저 오월십오일에 종료하엿는데 발육은 패지안코 물은충분하다

木浦 맥작은 비가너무와 발육이 불량하야 컨년에 비하여 일할오부쯤 감수될터이고 특히 이모작답은 불량하고 묘판은 불량하엿스나 최근 회복되고 물은충분하다

裡里 맥작은 이할감수 될듯하며 묘판은 발육이 불량하고 목하물은 충분하나 이후가 념려되여 이앙을 급히 하고잇다

大田 맥작은 가물과비가 만이와 결실이 일주간 느젓고 이할오부 감수될듯하다 묘판은 대체로 량호하고 물은 충분하야 이앙 가능면적은 칠할쯤 될터이다

京城 맥작은 경성이북 이할감수고 이남은 평년작이다 묘판은 비가너무와 가믐고 지나처 자란모가 만코 물은 충분하다

元山 맥작은 발육이 순조이여 평년작보다 일할정도 증수될예정이다 묘판은 파종후의 피해가 잇섯으나 최근회복 되여가며 륙월칠일경에 이앙이 개시될터이며 물은 충분하다

沙里院 맥작은 평년작보다 일할내외 늘터이며 묘판은 십팔일의 호우로 제방이 문허저 다시파종 하엿스며 사월날 파종은 불량하고 오월상순 의것은 량호하다 물은 충분하나 컨수답지대는 상당히 비가와야 하겟다

平壤 맥작의 발육은 량호하고 묘판도 발육이 순조이다 평북(平北)은 이앙에 착수하엿다는데 수리조합구역 이외는 아직좀더 비가와야 하겟다

그리고 경성이북은 임이 이앙에 착수 하엿는바 경긔도(京畿道)도작답이앙률은 작 게출되엿다

延專對世專

對抗野球戰

팔구량일계속개최

연희전문(延專)과 세브란쓰의전(世專)의 대항야구전은 팔구량일간 오후네시이십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니다는바 당일경성방송국 에서는 박춘근(朴春根)씨를 아나운서로 가조선말로 경긔경과를 방송하다고한다

中央體研에서 園遊會를開催

시내 화동(花洞)에잇는 중앙체육연구소(中央體育硏究所)에서는 오는륙월십일일(일요일)에 례년에의하야 원족원유회(遠足園遊會)를 열리라는데 장소는 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상류다고하며 당일은 동소사범(師範) 서상천(徐相天) 리규현(李圭鉉)량씨의 인솔하에 백여명회원과 그가족이 한데모여서 보배찻기, 선유, 수영, 체조, 경긔기타와 촬영등 여러가지 자미잇는행사가 잇스리라한다

奉天서도 京大出身人奮起

總長에게激勵送達

【奉天七日發電通】 경도제대 롱천교수(瀧川敎授)문케에 관하야 경도제대법(法) 경(經)량학부졸업사로 조직된 길천회(吉田會)회원십명은 륙일오후일곱시부터『야마도호텔』에 회합하야 금후의 방침기타를 협의하고 다음과가튼결의를 하야 즉시 소서총장(小西總長)에게 타전하엿다

이번롱천 교수문케에 관하야 법학부교수와 밋학생 각위가 취한커치는 극히 지당타절하다고 인정하고 극력지지 한다 목적관철을 위하야 더한층노력하기를 바란다 봉천길천회

또한 일량일중에 다음과 가튼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되엿는바 대련(大連)신경(新京)기타 컨만주 각지에잇는 백오십명의 졸업생과 련락하야 문부당국의 반성을 촉진하기위하야 머지안어 문상(文相)에게 타전할모양이다

우리들은 롱천교수문제에 관하야 신중히 협의한결과 법학부교수와밋 학생일동이 취한커치는 극히 지당타절하다고 인정하고 극력이를 지원하는동시 문부당국의 맹성을 촉진하야 모교의 불안이 하로라도 속히 제거되기를 바란다

봉천길천회일동

警官應援타 兩住民被殺

함남혜산진에 나타낫든 오십명의 무장대의 습격으로 경관대 비명이 사상을 당하는동에 경관대를 응원하다가 부근주민으로 갑산군보혜면혜산리(甲山郡普惠面惠山里) 전중헌(全重憲)과 강창근(姜昌根)의 두사람이 총에마저 죽엇다한다

六月八日 (木曜日)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조개회와새·볶히) 日用品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 『벤허―』
◇同〇時四〇分 뉴―스 音樂 金肇盛 伴奏
◇同七時三〇分 講話 防空과府民의覺悟(一) 陸軍大尉 金錫源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이어서 野球試合實況 (朝鮮語) 延專對京醫專 第七回對抗野球試合 第一日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謠
一、齊唱 첫봄…柳基興作曲
二、獨唱 풀닙가는배…李忍淑作曲 綠星童謠硏究會員
三、齊唱 빗방울…柳基興作曲
四、獨唱 꼿노래…尹克榮
가、무궁화 나、백합화 다、장미화 라、백일홍 마、할미꼿
五、齊唱 오독이…朴泰俊作曲
六、獨唱 비오는거리…柳基興作曲
伴奏 柳基興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世界各地의産物(二) 徽文高普敎諭 金道泰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 家庭講話 家庭管理에對하야(三) 宋今蓮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중머리 나、잔머리
二、倂唱 가、短歌 丈夫恨 나、沈淸傳中 瀟湘八景 沈相健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鼓手 沈明珠
一、獨唱…헨델作曲
二、메누엣트…헨델作曲
三、트로이메라이…슈―만作曲
四、엘리스…에셔作曲
五、메누엣트…듀섹크作曲
六、獨唱…바하作曲
바이올린 蔡東鮮 피아노伴奏 李少(?)
◇同九時 歌詞와俗謠
一、白鷗詞 二、時調 三、女唱지름 四、男唱지름 五、遊山歌
金眞紅 高敬德
◇同九時三〇分 (A)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六月八日 (木曜日) (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 (A) ラヂオ體操 ▲同六時三〇分(A) 基礎獨逸語講座(二十五) ▲午後〇時五分 マンドリン獨奏及合奏こ獨唱 京城コロムビアマンドリンオーケストラ ▲同二時 家庭講座 夏の草花栽培(一) ▲同四時 ニュース 職業紹介事項 ▲同四時三〇分 關西大角力實況 ―京城府旭町一場より中繼― ▲同六時 物語 ライオンマン(密林の王者) ▲同六時二〇分(A) コドモの新聞 ▲同六時二五分 中國語講座(十八) ▲同七時三〇分(A) 國際經濟會議特別講座(大) 關稅並條約政策 ▲同八時(A)長唄 新兩浦島 ▲同八時二五分 (A)狂言 ▲同八時五〇分(A) 講談 名人傳(第一席)

라듸오學校 午後六時二五分

世界各地의産物(三日間)… 徽文高普 金道泰

産物에는天然的産物과人工的産物―이두가지가잇다 天然産物이라함은이地球우에天然的으로産出하는動、植、鑛物을말함이니 이世界의무슨物件이든지 이서가지에屬하지안은것이업다 그다음人工的産物이라함은 右에말한天然的産物을 붓어다가人工을加한데不過하다 아모리天然産物이豐富하더라도人工을加하지안으면아모所用이업게되는것이만다 一、産物이란것이무엇인가? 二、人生과産物 三、氣候風土와産物 四、各國과産物

◇明日順序◇

六月八日 (木曜日)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수커비)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俗謠 朴禮玉 金一朶紅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七時三〇分 講話 防空과府民의覺悟(二) 陸軍大尉 金錫源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이어서 野球試合實況(朝鮮語) 延專對京醫專 第七回對抗野球試合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連續童話 秦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世界各地의産物(二) 徽文高普敎諭 金道泰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 講演 映畫와兒童敎育 李軒求 ▲同八時(A) 피아노獨奏 시몬·카스페 ▲同八時三〇分 雜歌 朴明花 ▲同九時 連續野談 魯智深(一) (水滸誌中) 尹白南 ▲同九時三〇分(A)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명일중국을…(三)
질머질녀성들
◇그들은어서더한일을하고잇나

劉曼卿女史

류만경녀사는 작년에 일어낫든서장사건(西藏事件)에 만히활동한부인입니다 녀사는 서장에서 태여낫스며열살에북평으로가서 중학 공부를맛은사람으로서원래부터중국본토와서장과의 융화(融和)에 노력할희망이잇든바 장개석씨에게발견되여 중요한 지위에나간것입니다 지금으로 삼년전에 국민정부로부터 큰사명을 띄우고 팔개월간의 곤난려행을하야 서장에들어간일이잇섯스나 이것은 그이가서장으로부터 대표가 남경정부에 왓슬때 우연히장개석씨와 그대표사이에 통역을하얏든것이 긔회로 그후국민정부의서긔생(書記生)이되고또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의 위원이 되엿든것입니다 녀사는 아직졂은편으로 지금 이십칠세이며 서장갓슬때가 지금으로부터 사년전이니가 이십삼세때인데 일개졂은부인으로 그와가티 용감한일을한것입니다 도라온후려행에 관한책을만들어중국의출판계(出版界)에 비상한인긔를쓰럿다고합니다 작년영국으로부터습격을바든서장에 재차남경정부의 특사(特使)로써 파견되여용감한대장부에 진배업시 활약을 하게되엿습니다

童謠

할미꼿
車南星

노랑 나비 놀자구 차저온는데
간들 간들 웨작고 좁기만해요
숙인 머리 들구서 정신차리여
나불 나불 나비춤 구경하서요
솔솔 바람 차저와 조름깨다고
한들 한들 깨와도 웨안깰니까

人形의 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12】
蔡萬植 作
吉鎭燮 画

농촌풍경 (二)

실심하게 서서잇다가 생각지도 아니한 인사를 바드니 노―라는 자즈라지게 놀내어 그사람을 바라다보앗다 바라보느라니까 그 텁직한 이마며 별스심한 코 입은커담을고 눈만웃는 입과눈커―다란얼골 커―다란 몸과키―

이런것이 아니게아니라 아는사람 알되 인상이깁게 아는사람인데 누군것은 생각이 아니난다

『하하 오래돼서 이즈섯구만이요……나 병택임니다오 병택이……』

『아! 오병택씨……어써면……』

하고 노―라는 일홈을 듯고 비로소 깨첫다

앗작 반가웟다 반가울만한 사람을 이런째에 맛낫스니더 반가운것이다

『참 이것서요……알뜻알뜻 은한데……생각이 아니낫서요』

『네 이즈섯기도 쉽지요 십여년이나 되얏스니……그런데 친정댁에 오시는길이세요?』

『네』

『그러면 어서 가시지요 맛침 잘뵈엇습니다 모시고가지요』

노―라는 걱정스럽든 마음이 턱 뇌엿다

병택이라는 사람은 노―라를 대합실에서 기다리게하고 동리에 들어가서 짐군을 어더다가 짐을차저 지어주엇다 그래커래 날이 깜박 저문 뒤에 두사람은 짐군을 뒤세우고 등불하나로 눈삽어 길을 나섯다

병택이는 노―라와 한동리 사람이다 세변금인가 보통학교는 병택이가 위엇스나 엇잿건 가치다니엇다 작난군이요 막난이 종때장이엇섯다 이년의자식 저년의가시내하고 노―라와 사흥도터러하엿다

서울서 중학교에 다닐째에도 그들은 각가히 상종하엿다 나히 들음애 병택은 고향사람의 정 이상의 마음으로 노―라를 대하엿다 그러나 노―라는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척하엿다

병택은 중학을 맛치고 일본으로가고 노―라는 좀잇다가 결혼을하엿다 그뒤로는서로 맛나지도 못하엿거니와서도 기억을 되집 일도업섯드는 것이다

다만 병택이만이 고향에이고 또 노―라의 어머니를― 종차저다니엇슴으로 그간의소식은 돗군하엿든것이다

『동경서언제 나오섯서요?』

하고 노―라가 병택이의 그뒤소식을 돗고저하엿다

『한 삼년 잇섯지요 떠이슴내야 맛천이 자라나요』

『그러고 놀 시골 잇섯서요?』

『웬걸요 도라다녓지요 별데를 다가고 별세상 다구경햇습니다』

노―라는 여러가지것을 캐어보고십헛다 그러나 웬지 말이나오지를아니하엿다

그는 길을 걸어가기가 퍽괴로웟다 불좁고 뒤급굽흐구두가 더구나 희미하게 등불에 빗치는 길바닥의 우툴두툴한것을 꼭나되될수가업섯다 몟번 넘어지려는것을 병택의 팔부잡고 겨우 바로서군하엿다 그러할때마다 큰정자나무에 몸을기대는것갓치 흥옷하엿다 그러나 몟번을 그러케 휫독거리고나니 발목이 시고안허서 거름을 걸을수가업나

『여기탈것 업서요?』

하고 노―라는 물엇다 종괴로워도 그대로 가는게 유쾌는하겟는데 더 견댈수가업섯다

『업서요』

하고 병택은 입맛을 썹썹씨다시엿다

『그러실줄 알엇드면 담차를 기달녀 지경으로가서 이럭거라도 타실것을……좀 늣더래도 그러케 타식가요?』

하고 물엇다

『담차가 몟시에잇는데요?』

하고 노―라는 솔깃하여 물엇다

『아마 열시나 되어야잇슬걸요』

노―라는 속으로 생각하엿다―열시까지 어떠케 기달녀? 그러고 그대케한다면 병택이는 가바릴텐데……

그는 병택이가 그 실안등으로 업어다 주엇스면 좁것가헛다

병택이도 업고라도 가고십헛다 노―라가 청을한다면 얼는 업고나섯것이다

이 귀찬치 아니한 귀찬한 집을 어떠케하나……하고 병택이는궁리를하엿다

가정의학

의학서적을 보고십허요

【문】 제가지금집에서 의학을배호고저하는데무슨책을선택할가요 글을한사와 언문만압니다 책일흠과가격을하교해주십시요 (桃花洞 甜三石)

【답】 의학공부가 그리간단하게되는것이아니니다 정식으로수년간 전문학교나대학에서공부를하고도 그뒤에더욱수년간 연구나또는실지견학을아니하면 상당한의사가못됩니다 타인의생명을 맛하보는것을그리경홀하게못합니다 자습책으로는로량진 춘암의원에서 발행하는의학강습록이잇습니다 醫學博士 朴昌薰

죽은깨가 만습니다

【문】 커는얼골에죽은깨가만허서 그것을업새라고만흔돈을쓰고도못새엿습니다 그런데갈사록이것이점말미암아 고통이심합니다 손과발에까지점은점이 생기게되엿습니다 이것을엇더한약으로뗄가요 약명과치료법을하교하여주시기바랍니다 全北 李揚秀

【답】 죽은깨가 그리속히용이하게업서지는것이안이외다 한번깨여버리어도 또다시납니다 그럭하나 신경을두히고소화기를바로잡고 아비산을잡수시면 차차로업서집니다 醫學博士 朴昌薰

キング
七月號の大壯觀

—最近の武藤元帥—

▲快絶壯絶 日米國際大裁判秘話 日本交通協會理事 小林鐵太郎
見よ！比島の天地を震撼させた大秘獄！フイリツピンに起つた波瀾萬丈の國際的大裁判！恐るべき人權の壓迫！戰慄すべき大詐術！驚くべき大陰謀！死刑を宣告されて異境の牢獄に泣く日本人西島、これを救はんと奮起せる熱血義士の涙ぐましき美挙！更に醜と美との大葛藤を描いて波瀾萬丈！

▲逸話の武藤元帥
今や、大命を帶びて大滿洲に奇智縱横の軍略をめぐらしてゐる、沈默將軍の面目躍如たる萬人感動の大名篇！

▲經濟會議とはどんなことでせう 經濟學博士 太田正孝
經濟會議とは？ 戰後の日本にどんな關係があるか等々萬人必讀

▲國際語の開祖英雄ザメンホフ傳 中村能一
貧乏學生から發奮努力、遂に愛の英雄と仰がる、感動の一讀感動の偉人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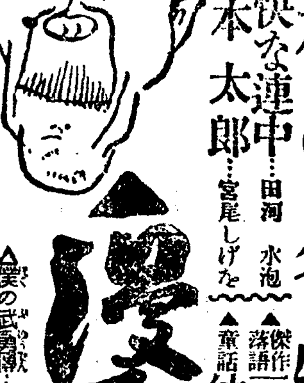
一兵士の肉彈手記
この一篇は、昭和六年九月十八日滿洲事變勃發以來、我が生命線守備の任に當つた上田部隊の一員として、匪賊討伐の爲各地を轉戰し、七年六月二十一日匪賊雲蔭附近の戰鬪に於て壯烈なる戰死を遂げた水野伍長が、魂を以て書き血淚を以て彩つた感激の戰爭大記録！

▲維新小說 伊達の輿作 本田美禪
天晴れ！輿作が義と忠に惱む大活躍！上野の宮の爲に

▲寒國奇譚 黃金狂時代 橋本四郎
松川教諭の炭燒小屋が發見した物は何？

▲諸譃小說 村の名物 佐々木邦
佐々木先生得意の大傑作篇！お腹を抑へて御覽下さい

▲漫畫 愉快な連中 田河水泡
▲武勇 日本太郎 宮尾しげを
▲傑作落語 三十二年型 柳家金語樓
▲童話 仲よし同志 前田晁



▲漫畫家大笑ひ放送會
△僕の武勇傳…△夫婦喧嘩…△僕の初戀物語…△僕の失敗談等々、一平、比左良、千帆、爾保布、對岳坊、青起、邦坊、一水、樂天、しげを等の一流漫畫家が、遠慮手放題のことを語合つた天下一品の大計畫！

▲大入滿員 漫畫レヴュー館
▲漫畫ユーモア これは〳〵集
▲誰でも喜ぶ 面白繪讀本

伏見直江 自傳小說
銀幕に咲く名花伏見直江の數奇を極めた流轉物語！讀み居る中に感激の淚が頬を傳はる珠玉篇！

▲警視廳漫畫のぞ記
漫畫界の名物男那坊氏が、嚴しいおぢさん達の警察廳を訪問して探り出した名篇

▲探偵小說 3·3·3の秘密…花岡健二
▲芝居小說 船頭松右衛門…加藤武雄
▲純情小說 光りを行く…野村愛正
▲馬越恭平翁を語る
翁を最もよく知る有賀長文、藤原銀次郎、小林武彦、矢野恒太氏が語る追憶談！

▲キング笑話傑作選
▲キング面白繪統計
▲一問一答常識大學
▲各界ゴシツプ……
▲ワンダー・グラフ
▲一行智慧袋(寸鐵知識)
▲キングポスト……
▲時局替へ歌
▲金魚の話(趣味の話)
▲お菓子の漫談

萬五郎青春記 野村胡堂
天下を狙ふ萬五郎と隱密の一騎打！
大切な密書と檢閱面を持つた旅役者牛明兄妹が、尾州家の御用船で芝浦へ着くと聞いた乙女之助、身を御藏屋敷の荷揚人足にかへて乘込んで行つたが、合言葉を知らなかつたところから萬五郎の子分藤太郎の爲に忽ち見破られた。果然！捲起る白刄の閃き、乙女之助は、どうなる？仕合中大評判！

▲勇士講談 山中鹿之助…神田伯山
▲武勇講談 抜斫の功名…邑井操
▲傑作コント 半日早かりせば…尾崎士郎
▲昭和イソツプ 友達と剃刀…十菱愛彦

華命秘話 オルロフの夜光珠(ダイヤモンド)
ニコラス皇帝の富の中でも、時價何億圓と噂された世界第一の夜光珠紛失事件を中心に美男、美女、怪人等入亂れて大活躍！長田秀雄先生大傑作篇！

▲名刀秘聞 魂の匂ひ 前田曙山
義理と情けの柵に泣く貧しき浪人の妻千枝女の生涯を描いて深刻！近來の名篇！

▲名人物語 川止めの宿 目黑麥男
今や絕體絕命の藤兵衛だ！危地から救つた青年碁士は果して何人？萬人感動

▲內鮮美談 恩讐を越えて 高東馬
あゝ、愛は強し！仇同志の父を持つ青春の血潮燃ゆる二人の男女の純情！

福運は誰に？ 問題は極めて簡單、ハガキ一本で誰にもスグ出來る大懸賞です(詳細キング七月號)
野球選手型高級置物五百個贈呈

▲理想小說 幻の兵車 賀川豐彦
純情一徹の青年と留しき人の爲に働く處女の人生哀史

▲悲戀哀詩 月に歌ふ 永守靈之助
讀む人悉く泣く奇しき運命哀話！世の青年男女よ見よ！

▲喜劇 秘密の黑髮 五郎
禿と禿の途方もない大喧嘩 お腹の宿替へ御用心！

▲外國小說 錬金家の娘 オブライエン作 和氣律次郎譯
▲冒險探偵 怪人ゼリコ モーリス・ルブラン原作 保篠龍緒譯

▲猛獸密林國探檢記
戰慄すべき大冒險
猛獸のやうな男ガルトンを追つて…人も恐れて近寄らぬダッサンダーマの奧地に入込んで百三十哩の大密林を…

定價五十錢 (送料五錢) 東京本郷 大日本雄辯會講談社發行 振替東京三九三〇

朝鮮農業論 (二四)

◇土地利用과農業經濟의硏究

李勳求

家族은 朝鮮에서 社會的構成의 單位로되여잇는것은 다른나라에서 보는바와 조금도 다름것이업다 다만 朝鮮에서는 家族制度가 지나간지엇지 아니한 關係上 個人主義의倫理가 아직 徹底히서지못하고 너러서 家族關係는 한社會的結締로 보아서 歐米各國에比較하면 甚히 堅固함을볼수가잇다 孝道는 百行之源으로 社會上 倫理上 最高의 價値를 붓치는것이다

家族數는 一九三〇年에 一二六、三一二의 日本人戶數와 一五、二七〇 支那人戶數와및四六五 外國人을 合하야三、八二一、五六四라는 總計를보이엿다 그러나 家族이라는것과 戶라는것사이에는多少의 差異가업지아니하니 곳家族이라하면 다만 戶主의血族을 意味하지만 戶라하면戶主의血族以外사람이라도 한집에서 戶主와가티 居住하는사람外지도 包含하는것이다 그러나廣義로 解釋하면 家族이라는 말은同居人外지도 包括하는것으로 볼수가잇다

每戶當人員數의多寡와 및그 歷史的變化傾向는 임의論述한바이다 그러나지금이곳에서다시每戶當家族員數를 各道別로보기爲하야 下揭한圖解를提示한다

(圖解第十三省略)

上揭圖表로 조처보면每戶當人員數는 人口密度와 反比例的關係에잇는것을表示한다 即 北鮮地方은人口密度는 적으나 每戶當人員數는 크고南鮮地方에서는 人口密度는크나每戶當人員數는 적은것을알수가잇다 이와가튼 現象의 根本理由가 那邊에잇는가는 暫間동안別之勿論한다할지라도 한興味잇는 社會現象으로 볼수밧게업고따러서 이現狀이農村經濟에밋치는 影響도 적지안이한것을推測할수가잇는것이다 換言하면 家族員數가 만흐면 만흘수록 農業經營上 勞賃으로 支出되는것은 적을것이요 또그와反對로 一家維持의生活費는커질것이다

朝鮮人口를 다시職業別로조처보면 자못興味잇는 여려가지의 事實을 發見할수가잇다 爲先一九三〇年末에 人口를職業別로 보면 農林牧畜業者가 最多大數를 차지하여서全人口千人中에約七百八十六人빼七八、六%가農業者라고할수잇섯다漁業及製鹽業者가千人中十五人工業者가二十五人 官公吏가三十四人 商業及交通業者가七十五人其他有職業者가 四十八人이엿고無職業者或은 報告치안이한者가十八人이엿다 그럼으로 人口의特性이 農業的이라는것은 殆히固定한 事實이다 더욱히 이職業別人口를民族別로 본다면 朝鮮人은 더욱農業的이엿다 即八〇、五%以上이農業者이엿던것이다 그래서商業及交通業者는 다만余人口의六四%를 不過하는 少數이엿다 日本人은 大部分이 官公吏이여서 每千人中에 三五四人이나되엿다 商業及交通業者도 比較的 多數이여서每千人中에 二百九十四人이나되엿다 外國人은 大部分이 商業者及交通業者이여서 每千人에 四四九人이나 되엿다 外國人中에는農業者도 相當한數에達하는데 그것은每千人에二百四十人이나되엿다 이外國人中 農業者가 만한理由는 都會地附近에 野菜農業을하는中國人이만키때문이다 總括하여말하면 朝鮮의人口는 二大部分이農業者요 더욱히 朝鮮人만본다면 農業者가 全人口의八〇%以上을 占領한것을 알수가잇는것이다

이職業別人口組成을 歷史的으로 考察하여보면자못興味잇는것을 發見할수잇다 곳 統計表가 比較的正確하다고 할수잇는時期인 一九二四年부터朝鮮人農業者數가 엇더케變化하엿나보면 아래에提示하는 表와갓다

浸水家屋問題로 仁川府會大波瀾

朝鮮人議員의修正案은 덥허노코默殺를시킬뿐

府當局處事를非難

【仁川】 인천부 금곡리(金谷里) 와송림리(松林里) 일대는 해마다작마때면 하수구(下水溝) 물이넘치어 침수가옥이 수십호에 달함으로 그곳주민들은 몃해를 두고비만오면 안돈을하지 못하고도로에서 방황하는터인바 그광경을 목도하는 조선인의원들은 우금륙칠년을 두고부회를 개최할때마다 그곳하수구의 개축문제를 의내여 왓스나부당국 에서는『세멘트』와『탐화유』로장식을하는 도로에만권력을 다하고수렁에싸저 살수업는곳에는하등의시설이 업슴으로 인천부민의불평이 적지아니하든바 지난륙일에 인천 무덕관(武德館)에서개최되엇든부회에제안되시내궁정(宮町) 도로 용지매수비(買受費)의 추가예산안이 가결됨에따러 김성운(金成運)의원으로부터 전긔금곡리하수구 문제를일으키어 부당국으로서 너머나방만(放漫)하다고 일장론방을하엿다 그러나부당국은 신중하다 고려하기는 고사하고번외(番外)로서는 인천의 침수되는곳이 그곳뿐만아니닛가 거기대한공비를 드리지안코는 도저히될수업다는 답변으로 회피만하려할뿐아니라 의장인 송도(松島)부윤은 어더한 수정안이 잇느냐고 반문을함으로 김성운의원은 용수(用水)조사비 오천원에서 사백원방공연습제비(防空演習諸費)일천이백원을 전긔 하수구 개축비로 편입하자는 수정안 제출하고말아서김윤복(金允福)의원이 그수정안에 찬동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그수정안을인정치안는다고 전부묵살을 시키고무관심한일본인측의원들이의사진행을 재촉하야 히지부지원안그대로 가결되고 말엇다이에 대하야 부민측의 여론은 비등하며 인천부당국의 방만적 태도는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조선인측의원으로서는 부예산을 편성하기전부터 십분운동을 하지안코예산을 제출한 부회석상에서 비롯오케론을하기때문에 더욱조흔결과를 엇지못한것이라고 비란이놉다

五十週年 開港紀念事業 公會堂을擴張

【仁川】 금번인천부회에제안된인천개항오십주년긔념사업은 종래부회의현안이든바 이번 추가예산에 일만삼천원의 공비를 던지어면 일신하게 공회당을 확장하기로 가결되엇다한다

全滿朝鮮人 民會聯會定總

重要事項十三條討議

【奉天】 전만조선인민회련합회 제삼회정긔총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삼십일로부터 삼일간당지거류민회에서 개최 하엿는데 각지대표로서

奉天=林漢龍 鐵嶺=張宇根 開原=崔國敬 鄭家屯=朴鳳漢 四平街=朴在瑄 公主嶺=李寅燮 新京=金東晩 陶賴昭=朴在業 哈爾賓=卓春峯 一面坡=金□河 寧安=金有麟 齊齊哈爾=文汝誠 吉林=姜老永 盤石=元容國 蛟河=朴道川 海龍=尹學東 朝陽鎭=方養蒙 西安=車正烈 陶鹿=康富達 東豐縣=金容淑 興京=金弼鉉 撫順=李尙賢 遼陽=趙郁 鞍山=白基瑞 大石橋=黃鶴奎 用庄台=金瑞鳳 本溪湖=金宙濟 安東=沈源河

제씨가 출석하야 제일일(五月三十日)은 준비회의(準備會議)로 각민회제출의안(提出議案)을정리하엿고 제이일삼일(三十一日 六月一日)량일간은 본회의(本會議)를개최하엿는데 중요한결의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決議事項十三條省略)

이상과가치 결의한중에도집단농촌건설촉진(集團農村建設促進)과무적자취적문제(無籍者就籍問題)와교육에관한건등은재만조선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요 시급히해결해야 할일이니만치 련합회당국에서도 적극적활동을 개시하려고 하는바일반동포들의 긔대도 어느정도外지는큰것이라고한다

水路問題惡化로 關係住民亂鬪

擴張派反對派가對立하야

【咸興】 지난오일 함주군 삼평면(咸州郡三坪面)오개리주민백여명이작당(作黨)하야 일대란투가잇섯는데 이제그자세한것을 알어보면 전긔삼평면에는 전부터 동평수리조합이 조직되여 그구내에잇는논에 수로를리용하여오고 이반면에 그수로로말미암아 피해를입는 권답도잇슴으로 항상지지파와 반대파가대립되여 싸워오다가 지난오일에는 반대파에서 제방을파괴하고내려오는물을 저지(阻止)함으로 할수업시량파가 충돌되여일대란투가 일어낫다는데 이급보를접한 함흥경찰서에서는 평정출(平井田)경부보가 부하십여명을다리고 현장에 급거출장하야 폭행자여섯명을 검거하엿다한다

窮民救濟工事에 賃金支拂交涉

請負業者가支拂치안는다고 郡에서道에請願

【釜山】 경남고성군 마암면(慶南固城郡馬岩面)구내의대구동영선(大邱統營線)이등도로개량공사는 경남도의 궁민구제사업으로 방금공사를 진행중인데 그공사청부자인 부산대신정(釜山大新町)유장구송(遊長菊松)이라는사람은 약일개월동안이나 사역인부의 임금을지불하지 아니하야 로동자의공긔가매우 험악하야가는중인데 이에놀내인 고성군당국에서는 그동안수차 청부자에 임금지불을 최촉하엿스나 듯지안는다 하야 지난오일부로 경남도당국에 임금지불교섭의 청원이 드리왓다한다

兩名의…… 金密輸犯送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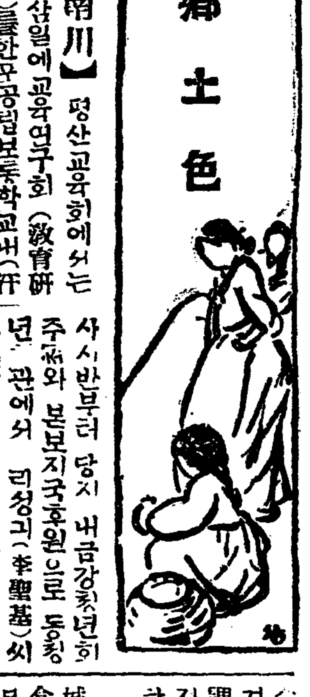
【新義州】 사관칠백몸메의금봉(金棒)을 이중(二重)트레크밋헤넛코 국경선을 교묘히넘어서 안동역(安東驛)에서 인력거를타라다가 체포된 안동현대화교통(安東縣大和橋通)륙정목이번지 장련(張康)(三四) 급 도록번동구정목 김태웅(金泰雄)(二四)(광명모다가명)은 그동안 신의주경찰서에서 취조를밧다가 지난륙일 신의주검사국으로 송국되엿다한다

延專巡回音樂 城津에서盛況

【城津】 지난이일연전동문회성진지부곽세현(郭世顯)외수인의주최와 각신문지국 후원하에 연전순회 음악단 대연주회를성진좌에서 개최하엿는데 때마침성진 개항삼십오주년 긔념축하운동회가 잇난날이라 장내는정각전에 대만원을이루엇고 연주회는 현제명(玄濟明)씨의 지휘로 성황리에 종료되엇스나입장권을미리사고 입장못한 사람이삼백명이상이나 됨으로 예정을변하야 그다음날에도 연주회를 열어엿시대판인이엿다고한다

昌寧麥農凶作 二割減豫想

【昌寧】 창녕군하(昌寧郡下)의금년맥작은 대단 호성적으로발육되엿든바 전번수일간 계속하야온비로인하야 논에 경작한 보리는다수가 물에잠계서 수확(收穫)에만는관계가잇다는데그



鄕土色

【南川】 평산교육회에서는 본월삼일에교육연구회(敎育硏究會)를한포공립보통학교내(汗浦公立普通學校內)에 열엇는데 관내각보통학교교원으로부터출석한 회원이삼십륙인으로 각각지긔의연구한교육안(敎育案)을토의하얏스며 그다음에 교육에대한 강연회와 비판회(講演會批判會)가잇섯고 이튼날에다시교육총회를 열고 칠년도 결산보고와 기타교육에대한 필요사항을협의하엿다한다

【內金剛】 말휘리역전(末輝里驛前)에서는 지난사일오후사시반부터 당지 내금강청년회주최와 본보지국후원으로 동청년관에서 리성긔(李聖基)씨(初段)를강사로고빙하여유도회(柔道會)를개최하엿는데회원과기타청년이 다수참가하여 쾌활한경향을 이루엇스며 방우시부터 십시外지 회원은다시단련을연습하엿는데 금후부터는 밤이면 언제든지 련습을계속케하리라는바 희망자도 상당히만흘모양이라한다

【善山】 한해지로유명한군내무을면상송동(舞乙面上松洞)에는금번 총독부에서 촉탁오윤수(吳潤洙)씨를 조사원으로 파견하야 미생산비조사(米生産費調査)를 사개년간 계획으로 실지조사케되여 지난일일에 부임하엿다한다

【洪城】 충남홍성(忠南洪城)에는 근간 음식점영업자(飮食店營業者)가 속출함을따러작부(酌婦)들의 풍긔를문란(風紀紊亂)케하는등풍괴를 만하 당지경찰서에서는 지난오일에 관내영업자전부를 소환하야 엄중취체하는 동시에요리옥음식점취체규칙위반(料理屋飮食店取締規則違反)으로 영업자 비사람에게대하야 과료삼원(科料三圓)식의즉결언도가잇섯다는바 압흐로는 엄중취체하야부청자를 소탕할계획이라고한다

【釜山】 이번에선거된경남도회의원(慶南道會議員)중조선인의원들이 지난삼일에 부산영주정(釜山瀛州町)대성려관(大成旅館)에 모혀 도정연구(道政硏究)호상련락(互相連絡)을 목적하고 경우간담회(慶友懇談會)를 조직하엿는데 동회는 희소집권후에 개최한바 간부는 다음과갓다

幹事長金秉圭 幹事權稷 同尹炳浩

【瑞興】 서흥군신막역(瑞興郡新幕驛)에는천여호에의로 귀관은 일본인경영의 조선인경영도본과 일커로급한여름을 당하야불편함이 만튼바 안태회(安泰熙)씨는당지추월관(秋月館)자리에다가 만반의 시설을맛처 고불일내로 개업하리라 하야일반은깃버함을마지안는다고

【英陽】 경북영양군(慶北英陽)종래 농촌진흥운동(農村振興運動)이 본도내에서제일격열하든중 또래십칠시간긔념일(時間紀念日)를긔회로일반에게 시간관념을이른키기위하야이에 대한『포스터』를각호에 배부하엿고당일은 각부락이 통하야일제히조긔회(早起會)와선전강연등을계속단행할터이라고

【內金剛】 회양군(淮陽) 장양면에서는 수일전에야 춘잠소립(掃立)이굿낫는데잠종매수(蠶種枚數)가륙백매라한다 이것을작년매수칠백십팔매에비하면금년는 일백십팔매 이라는 격감을보게된바 원인은 작년의공동판매 가격이 고치 일관에대하여평균가격이 일원삼십륙전의참혹한염가(廉價)이엇슴으로양잠가에서는뽕나무外지베여바린사람조차잇섯다

濟州島赤化計劃 秘社事件控訴公判

被告二十四名 最高五個年 最下六個月言渡

【大邱】 긔보=전남제주도(濟州島)적화(赤化)를계획(計劃)한 신재홍(申才洪)이하이십사명에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治安維持法違反事件)의공소공판(控訴公判)은오일오전십일시부터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제일호대법정에서상야(上野)재판장 고야(高野)리(李)량배석판사(兩陪席判事)송긔(松崎)검사(檢事)립회아래에서 개정되여 정내청외의 엄중한경계리에 상야재판장으로부터 다음파가티 판결언도(判決言渡)하고 오후령시에신오분에 폐정되엿다

姓名	住所	言渡	通算日
金漢貞	濟州島	五年	三百四十日
安九□	同	十年	百二十日
申才洪	同	五年	百八十日
金聚五	同	三年六月	同
金順□	同	三年六月	
金時坤	同	二年六月	
韓香澤	同	二年	
李辛□	同	二年	
高□□	同	二年	
吳太進	同	四年	同
吳公雨	同	四年	同
文道培	同	三年	同
吳文奎	同	三年六月	同
康寬順	同	二年	同
金泰安	同	二年六月	同
夫泰煥	同	二年六月	同
朴煥奎	同	二年	同
金濟煥	同	二年	
金敬□	同	一年六月	
文在□	同	一年六月	
□□□	同	六月	百二十日

重婚하라든 香禮席의風波

◇……蹂躪當한女子가出現

『이날은내날』이라惹鬧

【城津】 지난삼일오후삼시경에 성진욱정 료리옥동(料理屋通)모결혼식장에서 일대삼각전이 연출되여 인산인해를이루어 일시는 동행外지 두절된광장한 사건이 발생되엿다 사건동청 료리옥동에사는 의생김○희(金○曦)씨의 실자정구(正求)(二三)(假名)는 작년십월 학성면쌍포동남석(鶴城面雙浦洞南夕)에사는 황○준(黃○俊)의 딸옥희(玉熙)(一九)(假名)와 가(한쪽나드리)를하고금년봄오월십일에 또다시옥정리○준(李○俊)씨의딸 옥동(玉童)(一九)(假名)과 결혼식을거행하는그현장에 전긔옥희가돌연낫하나 오늘은 나의날이다 누가감히이자리에 안즐수잇겟느냐고 고함을치며 옥동의면상객에게 달여드려 의복을 산산이찍즈며 몸부림을하는것을 경관이와서 제지하고 신랑과 옥희를 파출소에 불너다가 량편의리유를청취한후 신랑에게 일장설유를하야 돌려보내엿다한다나 이케왕방기자에게 옥희는 그어린가슴으로 불붓토하면서 자긔업부의압에서 조금도

第三回 陸上競技大會 龍川體育會主催

【龍岩浦】 평북룡천군체육회주최로 제삼회륙상 경기대회를 지난륙월 사일오전 십시부터양시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개최하고 룡천군공보십일교 선수수백명과 관람자 수천명이모여성대히 대회를 동일오후사시外지 굿진바 양시공보에서우승하얏다한다

長城郡廳書記 公金携帶逃走

橫領金額二千餘圓

【長城】 전남장성군황룡면월평리(全南長城郡黃龍面月坪里)에사는 정인섭(鄭仁燮)(假名)(三五)은 작년九월경에 도지방서괴로 장성군에근무하야 각종징수계사무에 종사하든중 피부병으로인하야 온양온천을간다하고 오월십륙일부터 동월말일外지의 사가(賜暇)원을제출하고 불소한공금을 횡령하야가지고 도주하엿는바 그액수는 잘알수업스나 대강장부를조사한결과 국고권납도비 장성군학교비 이천구백원이라한다 도주한 형적을 알게된 군당국에서는 장부조사에 착수하엿스며 장성경찰서에서 각처로 수배망을 느리엿다고한다

【平壤】 숭상동창회(崇商同窓會)에서는 정양승인상업학교동창회(崇商同窓會)모교사무실(母校事務室)에서 위원회를개최하고 규약수정과 임원선거(任員選擧) (夏期音樂會開催)하기로되엿는데 중요한 사항을토의하엿다는데 개선된임원은 다음파갓다

◇任員 會長金□□ 副會長金□□ 總務金彰燁 書記金大□ 會計金聲恩 理事金晩俯 安國保 車在益 金有鄭 韓漢浩 李明道 朴季俊 金承鎬 尹弼炳 金寶鉉

崇商同窓委員會

他殺、自殺、變死

初更大道上에 二人組强盜出現

현금십여원강탈도주 —犯人踪跡杳然—

【全州】 지난사일밤구시경에 전주군이서면 상가리(全州郡伊西面上可里) 큰길에 이인조 강도(强盜)가 낫타낫다는데 내용은동면은교리(同面銀橋里)사는리발업 문학선(文學先)이란사람이당일전주상에서 약 칠원가티의 물건을사가지고자전차(自轉車)에 실고동지점을지내든바 돌연큰길양편에서괴한(怪漢)이 명이 나타나서 일명은자전차를뒤붓잡고일명은 회중(懷中)을 뒤저지갑에잇는돈 십일원을 강탈도주한것이라는데이급보를접한전주서에서는 사법주임이 형사인을대동하고 지점에 급행하야범인체포에 진력하엿스나 지난륙일外지 범인은 아즉체포치못하얏다한다

夫婦싸우고 乃妻縊首自殺

生活難의餘波

【沃川】 충북옥천군서면오동리(忠北沃川郡西面梧桐里)에사는 한도성(韓道成)(五○)은 생활난으로 인하야항상 부부간에 싸홈이자저오든중 지난삼일 새벽에도 사소한말다툼으로 인하야 부부간 싸홈이시작되야남편한도성은 자긔의처림성녀(林姓女)(三六)를구타하엿든바 림성녀는 참어오든분을 이기지못하야 삼일오전두시경에 자긔집웃간에 목을매여 자살하엿다는데 자살인지타살인지 가의문임으로소관서주재소에서는철저한조사를 진행중이라는데 그들의사이에는 이남이녀의 소생이잇서 어머니부르며 우는정상은목불인견이라고한다

하려든원인은 매우복잡한 가정의사정으로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십여일전쥬은동손을 못니저 극도의신경쇠약으로 세상을비관한나혜 그와가티 음독한것인듯하다한다

原因未詳한 九歲少兒溺死

【密陽】 경남밀양군밀양읍내이동(慶南密陽郡密陽邑內二洞)팔백삼번지 황주성(黃周性)의장남 황규원(黃圭元)(九)은금년에 보교일학년인데 륙월삼일오후두시경에 집을나가 아모도모르게 읍에서 약삼마장되는밀양남천강하류에가서 싸저 죽엇는것을 고기잡는사람이 발견하고 건저내엿다는바 그곳外지나가서 물에싸저죽은것이 퍽이상하다고한다

曾孫死亡을悲觀 七十老婆飮毒 生命이매우危篤

【兼二浦】 겸이포본정구번지(兼二浦本町九番地)려인숙업(旅人宿業) 김병익(金炳翼)의조모 리영숙(李永淑)(六六)은 지난삼일오전구시경다량의양잿물을먹고 생명이 매우위독하다는데 자살

一週日後死亡 加害者檢擧取調

泥醉格鬪後

【新義州】 의주군가산면방산동(義州郡加山面方山洞)에리춘화(李春華)는가튼동리에사는강만록(康萬錄)과 지난오월이십칠일 오전두시경에 술을먹고싸우다가 집에돌아갓든바 지난륙월이일에 돌연 사망하엿슴으로 전긔강만록은 지금 상해치사죄로 취조를밧는중이라한다

金鑛굴에서 九歲少兒慘死

【合德】 충남당진군범천면송산리(忠南唐津郡泛川面松山里)토금광에서 지난삼일 오후에시경에 금판구덕이에서 아홉살된 어린아이가 참사하엿다는데 그아이는 전긔주소에사는 안병덕(安炳德)의이남 상배(相培)(九)로서금판구덕이에 그아이형제와동리아이이사오명이 드러갓다가 큰아이들은나오고낭은형케는문어지는흙덤이에 싸여큰아이는경상을당하고상배는무참히 도즉사한것이라한다

나물캐는婦女를 無慘히잡어먹어

◇…南原郡北峙에서

호랑이

【南原】 남원군산동면대상리(山東面大上里)북치(北峙)재에서 호랑이가나타나서 부녀를잡어먹은사실이잇다! 지난사일에 동리김모의처(三○)가북치재로나물을 캐러가서 밤이깁도록도라오지안함으로 그가족들이 대경하여 오일새벽부터 북치재일대를 수색한결과 산록에서시체를발견하얏는데호랑이의흔적이잇섯스며 목덜미、턱、머리가업서서 보기에무시하게도 처참한광경이엿다한다

慶山에猩紅熱

【慶山】 경북경산군 경산면사정동(慶北慶山郡慶山面士亭洞)에는 근일성홍열(猩紅熱)환자가 일명이발생됨을 당지경찰의 알니운바되여 즉시환자는 경산면격리병사(隔離病舍)로 수용하고 일반에게 그예방에주의를 시키는모양인데 그예방의첩경은 첫재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둘재로는모긔와 이를주의하면 전염의념려가업다한다

强姦未遂코 人妻를또傷害

범인은미두장『합백』군 仁署에檢擧、嚴重取調

【仁川】 시내송현리(松峴里)사십오번지송춘산(宋春山)(三一)은일정한 직업이업시 인천미두시장으로 돌아다니며 합백(合百)이라는 도박으로 직업을 삼는부랑자로서 지난오일 오후여들시경에 술이취하야 시내금곡리(金谷里)삼십칠번지 박득준(朴得俊)의집에가서 그주인 박씨를찾다가 마침박씨가 집에업슴을긔회로 그의처송치선(宋致仙)(三五)에게풍속상조치 못한말을함으로 송치선은 몸을피하야 들어가게되자 전긔송춘산은 그안방에外지침입하야필경강간을 하려다가 그의반항으로야욕을 다하지못하고 발로그녀자의국부(局部)를차서중상을시키고 어데로 도주하랴고하엿스나 때마침리공옥(李公玉)순사에게 체포되어 방금인천경찰서에서 강간미수와 가택침입상해죄로 방금엄중 취조중이라하며 그녀자는 천구(川口)병원의사의치료를 밧는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居住屋을破壞 無慈悲한家主

借主側告訴準備

【伽倻】 경남함안군가야면말산리(慶南咸安郡伽倻面末山里)에서는 지난달 삼십일(五月三十日)에사람이 거주하는가옥을파괴하여일대 소동이 이러낫는데 차주(借主)는함안군 가야면말산리(咸安郡伽倻面末山里) 리성옥(李成玉)으로수년전에다 커로부터 상업을 목적하고이사하여왓스나 도처마다 여도는불경긔로 상업의 실패로작년에와서 거주하는가옥을 동리(同里) 안재열(安在烈)이란사람에게방매하고자기는 그집을한달에 오원식세로 차용하고잇든중 지난달이십오일 전긔가주 안재열은자기가 소용한다는 리유로집을 비여달라함으로 차주 리성옥은 팔방으로 집을구하든중 지난삼십일일에 돌연전긔 가주는인부오륙명을 다리고와서 집을모조리파괴함으로 당지 주재소에서는경관이 출장하여 가옥 파괴는중지시켯스나 일반시민은 무자비한 가주안재열의 악행에분개를마지안는다하며 차주 리성옥은가주를걸어고소를준비중이라한다

싸홈仲裁타가 丈母가誤死해

【義州】 옥상면 북사동 길골(玉尙面北社洞吉谷)최리봉(崔利鳳)(三○)은 지난오월이십팔일오전에 자긔장모김씨(金氏)(六○)를주먹으로 란타하여 동이십구일오후 사망하게되엿다 이제그자세한 원인을조사하면 전긔최리봉(崔利鳳)은 처윤씨(妻尹氏)(三五)와 항상의견불합으로 싸워오든바 수월전에도 역시싸움을하여 남편의집에서 탈출하여광평면상광동(廣坪面上廣洞)에잇는 자긔의친가에가서 잇든중남편이그곳에 차저와서 가티도라가자고 권하엿스나 그처는 죽기를한하고 불응함으로피차에싸움을계속하든중 장모되는 김씨(金氏)가 싸움을중재하다가 그

副業奬勵

【義城】 경북의성군귀천금융조합(慶北義城郡龜川金融組合)에서는 작년말부터 일반조합원에게 부업을장려하기위하야 동조합리사(金達齋)와및밧반직원들은 각방면으로 만흔노력을하든바 위선제일착으로 양말(洋襪)틀케조시켜그판로도 동조합에서알선하여주는바케조되는양말은매켜리에시가십오전의상당한케품이되면다음으로 계속하야 또한감자(甘藷)재배를식이것다하며 일반조합원들은 얼마안되는 이생산이나마 곤란한농가 경제에다소 보조가되리라한다

와가려 [illegible] 번무라당한가이 [illegible] 게된것이라는데 [illegible] 경찰서에 검거되여 [illegible] 를밧는중이라한다

四個郡 朝鮮酒造講習

尙州에서一週間

【尙州】 경상북도의주최로김천(金泉)선산(善山)의성(義城)문경(聞慶)과 상주(尙州)에 잇는각주조업자(酒造業者)사십사명을 군청회의실에모아 도청정상기수(井上技手)를강사로륙월오일부터 십일일外지 일주일간강습회를 개최한다는데 실습장은상주주식회사(尙州株式會社)에서 실지연습을 한다고한다

地方人事

▲李炳鎬氏(前保寧郡熊川面長) 退任人事次本報熊川支局來訪

▲李敏鎬氏(前任熊川面長)新任人事次本報熊川支局來訪

謹告

博川支局 顧問 宋光濂 右新任함

伽倻支局 記者 朴震 右新任함

安城支局 顧問 朴弼秉 李鍾權 鄭殷薰 朴容寅 右新任함

新幕支局 集金員 文錫烈 右新任함

廣州支局 顧問 朴寅煥 同 石鍾益 總務兼記者 石大洪 會計兼記者 宣鐘秀 右新任함

淸津支局 今般本支局位置를浦項洞八十三番地로移轉하엿사오니照亮하소서

本報支局主催後援事業

平壤

初夏音樂律動大會

△日時 六月十日(土)下午八時半

△場所 崇專大講堂

△出演樂士 洪蘭波、洪盛裕、金元福、李永世、河泰恩 京城保育合唱隊

◇主催 崇專學生基督靑年會音樂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密陽

市民大運動會

◇時日 六月十一日(陰五月十九日)

◇場所 密陽公立普通學校運動場

◇主催 朝鮮日報社密陽支局

今日

◇……午後八時半부터 崇專體育館에서……◇

第三回 全朝鮮씨름大會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